

장성 필암서원·정읍 무성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됐다

조선 성리학 산실 '한국의 서원' 9곳 세계유산 등재 소수서원·도산서원 등... '탁월한 보편적 가치' 인정

장성 필암서원과 정읍 무성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산실인 서원 9곳을 묶은 '한국의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됐다고 문화재청이 7일 밝혔다. 세계유산은 국가문화재를 넘어 세계인의 유산이 된 것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는 6일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제43차 회의에서 한국의 서원을 세계유산 중 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서원은 모두 9곳으로 장성 필암서원과 정읍 무성서원 외에도 영주 소수서원을 비롯해 안동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경주 옥산서원, 달성 도동서원, 함양 남계서원, 논산 돈암서원이다.

16~17세기에 건립된 이들 서원은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도 훼손

되지 않은 데다 2009년 이전 모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지정돼 원형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성 필암서원은 이국 출신 하서(河西) 김인후(1510~1560)를 기리기 위해 1590년에 건립됐다. '문불여장상'(文不如長城) 앞자리에 하서 김인후가 놓일 만큼 하서는 장성을 대표하는 학자다.

1540년 문과에 합격한 김인후는 인종이 왕이 되기 전 세자 시절 스승이었다. 인종은 스승인 김인후에게 목죽도를 선물할 만큼 그를 존경하고 아꼈다. 그러나 인종이 1545년 즉위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사화가 발발하자, 하서는 장성으로 낙향한다.

임진왜란 시기인 1597년 건물이 전소됐지만 1624년 지역 사림이 재건했다. 지금 자리로 서원을 이격한 것은 1672년이다. 필암서원은 19세기까지 전남에서는 훼손되지 않은 유일한 서원이다.

필암서원은 산지에 조성된 소수서원, 도



하서 김인후를 기리기 위해 건립된 장성 필암서원.



교육 공간인 흥학당이 서원으로 발전한 정읍 무성서원.

산서원, 병산서원과 달리 평지에 조성됐다는 점에서 건축적 특징이 있다. 경사지에 서원을 세우면 공간별 위계가 시각적으로 두드러지지만 평지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그에 비해 강당인 청절당(淸節堂)이 입구를 등진 채 사당을 향해 열려 있어 하서가 주창했던 예(禮)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17세기 초부터 구한말까지 제작한 문서

들이 '필암서원 문적 일괄'이라는 명칭으로 보물로 지정됐다. 여기에는 서원이 소유한 전답 규모, 소출량, 노비 등에 관한 문서를 상세히 기록한 것도 있다. 특히 서원에 걸려 있는 현판은 송준길, 송시열, 윤봉구 등이 썼다.

정읍 무성서원(武城書院)은 다른 여느 사원과 달리 마을에 있는 교육 공간 흥학당이 서원으로 발전했다는 점에서 특이하

다. 1615년 건립됐으며 당초에는 '태산서원'으로 명명됐다가 숙종 22년(1696)에 사액된 이후 전북지역 사람들의 활동 거점이 됐다.

이곳 서원에 배향된 인물도 많다. 통일신라시대 학자인 최치원(857~?), 신잡(1491~1554), 정극인(1401~1481) 등의 신위가 모셔져 있다. 최치원을 제외한 이들은 향촌 교육과 연계돼 있으며 성리학을

편중하고 보급했다.

무성서원에서는 자치규약인 향약을 매개로 주민들의 의사가 결집됐다. 이 같은 전통은 1906년 최익현과 임병창이 일제에 항거하는 병오창의로 이어졌으며, 지역의 정신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다. 건물은 사우와 강당인 명륜당(明倫堂), 기숙사인 강수재(講修齋)가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 GDP 12위 유지...1인당 국민총소득 세계 30위권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2위를 유지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순위는 세계 30위권으로 나타났다. 7월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6194억달러로 전 세계 20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전년과 순위가 같았다.

한국의 GDP 순위는 2009~2013년 14위에서 2014년 13위, 2015~2016년 11위까지 올랐다가 2017년 12위로 한 계단 내려왔다. 지난해 경제 규모 1위는 미국으로 명목 GDP가 20조4941억달러에 달했다. 이어 중국(13조6082억달러), 일본(4조

9709억달러), 독일(3조9968억달러), 영국(2조8252억달러) 순이었다.

프랑스(2조7775억달러), 인도(2조7263억달러), 이탈리아(2조739억달러), 브라질(1조8686억달러), 캐나다(1조793억달러)가 6~10위에 올랐다. 러시아(1조6576억달러)가 11위로 한국보다 한 계단 앞섰다.

세계은행은 직전 3년간 평균 환율을 적용(아틀라스 방식)해 각국의 GDP를 미 달러화로 환산, 발표한다. 이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명목 GDP(1893조4970억원)와 차이가 나게 된다. /연합뉴스



"7.0 이상 지진 확률 3%"...美서부 추가강진 우려 다소 완화

하루 간격으로 규모 6.4와 7.1의 강진이 발생한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 더 큰 지진이 잇따를 것이라 우려가 차츰 잦아드는 모양새다.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재발할 확률은 현재 3%로 전날(6%)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번 지진이 캘리포니아를 가로지르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영향을 미쳐 '빅원'(Big one)으로 불리는 대지진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했지만 전문가들은 일단 그 가능성도 아직은 낮다고 보고 있다.

6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지질조사국(USGS)은 향후 수일 내에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을 27% 내외로 추산했다.

캘리포니아공과대학(칼텍) 지질학자 에길 호크손은 "앞으로 한 주 동안 아마 한두 차례 정도 그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현재 3%로 전날(6%)보다 확연히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前震)앞서 발생하는 비교적 작은 지진에 이은 본진(本震)일련의 지진 중 가장 큰 지진이나 강력한 여진은 통상 수 시간에서 수일 내에 발생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큰 지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이다.

앞서, 캘리포니아주(州) 켄카운티 리지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켄카운티 리지크레스트의 한 상점에서 지진으로 진열대에서 떨어져 깨진 와인병들이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다. /연합뉴스

크레스트 인근에선 4일과 5일 이틀 연속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규모 6.4로 측정된 4일 지진이 '전진'이고, 7.1이었던 5일 지진이 '본진'이라고 보고 있다.

이 지역에선 이후 현재까지 최소 2700건의 여진이 발생했다. 평균 1분 간격으로 지

진이 이어졌던 셈이다. 이중 규모 5.0 이상의 여진은 6건이었다. 규모 4.0이 넘는 지진은 42건, 규모 3.0 이상은 340건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연합뉴스

아베, 한일 갈등에 '대북제재' 끌어들여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에 대해 단행한 '강제징용 판결 보복 조치'와 관련해 북한과의 관련성을 시사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BS후지TV에 출연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의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을 들며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일본 업체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한국 기업에 수출할 때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제재를 단행하며 '한국과의 신뢰관계', '수출관리를 둘러싸

고 부적절한 사안 발생' 등 2가지를 이유를 들었다. 이 중 '부적절한 사안 발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아베 총리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대북) 제재로 제재를 지키고 있다', '(북한에 대해)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징용공(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아베 총리의 발언은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지난 5일 BS후지TV에 출연해 한 발언과 맥락을 같이 한다. 하기우다 대행은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 용도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품이 북한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또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이른바 특례적 대응을 해 왔던 것을 그만둔다는 것"이라며 "(그 간의) 특별한 조치를 그만둔다는 것이므로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말했다고 FNN(후지뉴스네트워크)은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주(州) 켄카운티 리지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최고 투자 물건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입야, 992㎡, 공유 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4500만원(3.3㎡당 15만원)

문의. 010-6834-74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5200만원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방 좋은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주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입야-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소방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500
- 원풍동 적합 부지 남구 서동 342㎡ 위치좋은 4억5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광안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주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 건물

- 순천시 대대동 땅 324㎡ 건평 383㎡ 전세1억에 월1500대중 매도·교환 7억2천
- 대인동 버스도로 709㎡ 건평 810㎡ 사육 등 적합 공시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무안동 버스도로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함평군 해보면 문장 땅 919㎡ 건평 1207㎡ 원룸 30. 지하공실 17억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 물건

- 장흥군 장동면 우시 3천여평 허가 날 곳 땅 75368㎡ 매도 5억5천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점 산 97404㎡ 감정 8억4천천 이하 5억8천 매도 3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남평읍 드림길 모델 땅 2741㎡ 건평 1748㎡ 요양시설 적합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동전의 양면처럼 뗄 수 없는 관계인 풍수와 사주, 이 두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개강 (6개월 과정)

- 일 시 : 2019. 7. 2(화) 오후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9. 6. 25(화) 오후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당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